

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예산은 통상 사고이월로 처리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월 실적을 보면 예산현액대비 13.6%인 388억7천1백만원으로 이는 전액사고 이월로서 택시브랜드사업 지원(콜기능 설치) 등 총 22건이나 됩니다.

이러한 사고이월처리는 연도내에 지출된 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의 부대경비에 한하여 사고이월하여야 함에도, 확보된 예산이 불용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예산확보책으로 연도말에 사고이월 처리한 경우와 처음부터 연도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측되는 사업도 상당 부분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조치는 법에서 규정하는 정신이나 취지에 부합되도록 예산운용에 신중한 자세가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넷째,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견입니다.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그 지출은 차기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는 예산액대비 2.74%인 72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액은 28억3천7백만원입니다. 이중 22억4백만원은 지출하고 5억3천9백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9천4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의 주원인은 차적변조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배상금지급 판결에 따른 소요예산 신고통수단도입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등에 사용하였다 하나 신고통수단 도입관련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3억원은 사전에 충분한 예측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는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의 의의와 예산의 관련성 제고에 대한 의견입니다.

○ 먼저, 결산과 예산의 관련성 제고입니다. 예산이 1회계년도에 있어서는 수입·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이라면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실적을 표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결정적 계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은 무엇보다도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과연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령과 계수 등이 사실대로 재정활동을 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집행결과 소기의 성과 달성여부를 확인하고 현행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하게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적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또는 지적함으로써 잘못된 재정운용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서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이를 반영하여 시정하여 가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평가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충분한 검토와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추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0회계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2000회계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집행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주요 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입결산액은 당초예산액 1조3,20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액 1,715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조4,922억원 중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5%인 1조4,234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 세출결산액은 당초예산액 1조3,207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1,715억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1조4,922억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조2,766억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1,467억원이며 불용액은 688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수입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0년도 잡수입 예산액은 451억7천1백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한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73.7%인 333억1천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세분하면 불용강제 매각수입은 당초 예산 184억6천2백만원중 54%인 99억7천6백만원만이 수납되었고 또한 예금이자 수입예산액은 259억2천4백만원이었으나, 예산액대비 50%인 129억4천3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반면 이설비 등 경산환수금은 당초예산에 편성조차하지 않고 무려 93억6천1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과 결산과의 큰 격차가 발생한 것은 그만큼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 편성하였다 할 것이며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정확한 추계로 예산편성과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둘째, 불용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인 688억8천2백만원이 발생되어 전년도(144억4천2백만원)에 비해 무려 476.9%나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발생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변경 취소 99억7천1백만원, 집행잔액 152억6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75억2천5백만원 예비비 63억8천만원 등입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 증가는 지하철건설본부의 특성상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어려운 점이 인정되나, 미래상황변화에 대한 예측의 결여로 사업이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혹은 과도한 예산편성 등으로 인하여 불용률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보다 치밀하고 예측이 가능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끝으로 결산의 의의와 예산의 관련성 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은 무엇보다도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과연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령과 계수 등이 사실대로 재정활동을 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집행결과 소기의 성과 달성여부를 확인하고 현행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하게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적부를 최

종적으로 판단 또는 지적함으로써 잘못된 재정운용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서는 차년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이를 반영하여 시정하여 가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평가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충분한 검토와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추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